



- 영문 : European Black Vulture
- 학명 : Aegypius monachus
- 일명 : Kuro Hagewashi

야생조류(철새) 이동경로 **독수리(鷲)**

김성수 수의학박사(STAR 동물종합병원)

수많은 철새들은 번식지와 월동지를 이동하면서 매년 수천, 수만 km씩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장거리 여행을 한다.

야생조류 중에서도 독수리, 두루미, 기러기, 오리, 도요새 등등 철새는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 사이를 오고 가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잘 보호 할 수는 없으며 그중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철새에게 기착지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

는 중요한 곳이며 세계적으로 몇 번째 손꼽히는 드넓은 서해안 갯벌과 농경지에 퍼져있는 곡식 등 풍부한 먹이 자원이 있어서 수많은 철새의 생존 및 번식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독수리는 몽골, 시베리아 남부에서 살다가 겨울이 되면 매서운 추위를 피하여 매년 10월 하순부터 남으로 남으로 날아 내려와 우리 한반도에서 3월 중순까지 따스하게 살다가 자기고향으로 되돌

아 올라가는 겨울철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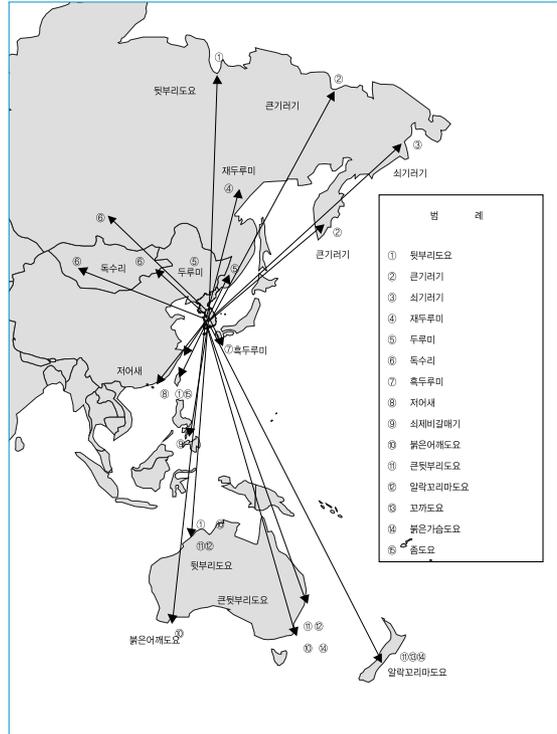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의 숫자가 해마다 10~20%씩 증가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속의 먹이가 메말라 있는 터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0년 12월 23일 현재 837마리 었던 것이 2002년 12월 21일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독수리 개체수를 조사한바 1,236마리로서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전선부근 경기도 파주시 장단반도지역에 가장 많은 1,000여 마리가 월동하며,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에 400여 마리, 제주도에서도 16마리가 월동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중간 월동지인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인 악화 때문에 이토록 많은 독수리들이 월동하기에는 힘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한국조류보호협회(회장 : 김성만)에서의 철새먹이주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파주시회 한갑수회장 등 모든 회원과 지역 군부대 및 파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군, 관, 민 합동으로 민통선 지역 내까지 돼지고기 등을 차량에 듬뿍 싣고 들어가 독수리들이 먹이 찾는 곳 가까이 접근하여 먹이를 공급해준 결과로 1천여 독수리들이 기아에서 벗어나 이듬해 봄까지 편안하게 추위를 이겨내고 따스한 봄철에 몽골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06년 11월 22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후 이웃 김제시와 충남 천안시, 아산시 지역에도 발



생하여 관내 모든 공무원과 농림부 산하 방역기관과 지역 수의사들과 주민들이 혼연일체 합심하여 반경 500m내의 닭, 오리등 가금류에 대한 눈물어린 살처분(매몰)및 방역(소독)활동으로 더 이상 발병하지 못하도록 피땀흘리며 노력한 결과 그후 전혀 발병하지 않았으므로 축산 농민들의 가슴을 평안하게 쓰다듬게 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과 인간과의 삶의 환경이 철저하게 보존되어 우리는 물론 후세들에게 질병없는 낙원을 물려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